



# 현직 교사가 말하는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이야기

오 승 미 대전 대덕고등학교 보건교사



“심폐소생술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처음으로 실제 마네킹을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보니 그저 동영상을 보며 교육을 받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았어요. 제가 한 시간동안 배운 심폐소생술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런 교육이 더 확대·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대덕고 1학년 이윤희 학생)

2016년 11월 18일 대한심폐소생협회의 교육 기부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배운 학생의 소감문 일부이다. 우리학교는 운 좋게도 ‘2016년도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학교로 선정되어, AED와 교육용 기자재를 기증받았고, 강사님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시어 학생들에게 교육해 주셨다. 본교에서는 보건의료계열이나 교육계열 진로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했는데, 학생들이 더욱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참여한 듯하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들뜬 표정으로 또래 친구와 가족들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방법을 가르쳐 주고, SNS, 개인블로그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하였다. 늦었지만, 지면을 통해 대한심폐소생협회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린다.

## 학교 심폐소생술교육 ‘의무화’되다

이전부터 보건교육이나 관련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현장에서 심폐소생술교육이 시행되어 왔으나,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개정(‘13.12.30)으로 모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시행 ’14.7.1). 2014년 4.16 세월호참사 이후, 교육부에서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각 최소 1개 학년 이상 필수적으로 이론과 실습교육을 하도록 했으며, 교직원들은 3년마다(보건교사, 체육교사는 매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2017년부터 교직원들은 매년 이수해야 한다.

##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올해는 학교 심폐소생술교육 ‘의무화’ 3년째다.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매년 초, ‘학교 심폐소생술교육 계획’ 공문을 학교로 보내고, 정기적으로 학교 심폐소생술교육 이수현황을 조사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나 지원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듯싶다.

최근 주변학교 보건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의 심폐소생술교육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적이 있다. 열띤, 때로는 흥분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정리했다.

“교육내용이 중구난방... 다 다른 내용...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 거 같아요. 성교육처럼 표준 프로그램을 줘서 학년별로 돌리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럼 보건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일반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잖아요”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제작한 BLS 교육동영상 있죠? 그것처럼 다 같이 따라할 수 있는 학생용 동영상도 제작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에서는 교육 시간이나 장소 확보가 어려워요. 교육 기자재도 부족하고요. 교육할 때, 교사 혼자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조교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인근학교와 연합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요?”

“올해 의용소방대에서 저희 학교로 연락이 왔어요. 학생 대상으로 교육하고 싶다고... 알고 보니, 그 분들 제대로 된 교육 자격도 없더라고요.”

“초등학교의 경우엔 저,중,고학년으로 나누어 연령에 맞는 교육이 필요할 듯 싶어요. 예를 들어, 초등 저학년에선 심폐소생술 이론교육이나 실습 위주보다는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고하기 등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배울 수 있는 인성교육과 연계한 교육이 필요하죠.”

“내년부터는 교직원들이 매년 교육을 받는다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지 걱정이예요.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려면 업무담당자의 부담이 크잖아요. 타지역에서는 연수 담당자가 맡고 있고, 교직원들은 알아서 개별적으로 교육받고, 학교로 수료증 제출하러던데... 우리가 심폐소생술교육 업무만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은 너무 많고... 학교나 일반선생님들은 관심도 없어요. 단일학교에 일임하기 보단, 교육청에서 연수과정을 만들어서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기관별로 교육비가 천차만별이예요. 학교에서 교육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한 두명도 아니고, 많게는 70~80명인데, 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 입장에서 교육비 부담이 크다보니, 무료교육 알아보라는 관리자분들의 압력도 있어요.”

“소방서는 무료교육이 가능한데, 관할소방서에 전화하면, 자기들도 학교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다고, 불평해요. 또 학교일정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교육일자를 잡기도 어렵고, 인원수 제한도 있고요.”

“최근에는 보험판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무료교육을 해주겠다는 업체도 생기고 있어요.”

## 실제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의 의견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연령에 맞는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에 대한 표준 교육안이 존재하나, 학급별, 학년별로 연령을 고려한 단계적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학교별로 수업공개, 수업지도안 등 교육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교사들의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나,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일반인 대상 교육동영상처럼 연령에 맞게 학생들이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둘째, 교육시간과 교육장소 확보의 어려움이다. 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5, 6학년 중 한 개 학년 이상 17차시 보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이 시간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이 이루어진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육시간 확보가 어렵다. 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한 개 학년 이상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 교육과정에만, 1~2시간 형식적으로 둔다. 필자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한 학

년이 총 12개 학급이고, 한 학급당 학생수는 30~40명이다. 이 규모의 학생들을 한 번에 제대로 된 이론과 실습교육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필자는 올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1시간 배정받아 실시하였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께 일일이 부탁하여, 학급당 1시간씩 수업을 얻을 수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지역 단체에 의뢰하여, 외부 강사들이 직접 학교로 나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 일과 시간표를 조정해야 하고,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현실적 문제로 동영상 시청만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 실제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교 교육과정 속에 체계적인 보건교육 시간을 학교장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셋째, 교육기자재의 부족이다. 필자는 올해 초, 학교예산으로 Little Anne 2개와 실습용 AED 1대를 구입했으나, 30~40명을 교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주변 몇몇 학교에 연락하여 10개의 Little Anne를 대여하는 등 수업 준비와 정리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다. 다행히 우리학교는 올해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교육기자재를 지원받아 내년부터는 훨씬 편해지겠지만, 이 정도 혜택을 받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이나 물품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보건교사는 매년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교육을 하는 만큼, 희망 교사들에게 강사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교직원 대상 이론과 실습교육 자격을 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

필자는 6년간 BLS Instructor로서, 많은 의료인과 예비의료인 교육에 참가했다. 그러나 2014년 필자는 재

직하던 학교에서 교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교육을 받은 교직원들은 모두 타 기관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교육을 받아 BLS Instructor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보건교사라 하더라도, 이론교육 강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공식적인 교육인증기관이 아니므로, 협회에서 발행한 강사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보건교사는 전문 의료인이며 교육자다. 의료와 교육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희망하는 교사가 있다면 대한심폐소생협회 일반인 강사과정을 이수하여, 교직원 등 일반인 대상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고, 이에 대한 교육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 간의 업무협정을 제안한다.

## 대한심폐소생협회가 동반자가 되어 주길 희망한다

필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은 단순 업무가 아니다.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도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을 교육하는 일... 그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내가 묵묵히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길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다. 필자뿐만이 아니라, 이 고단하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 보건선생님들에게 대한심폐소생협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길 희망한다.